

歷史哲學에의 關心

分析으로부터 綜合에 (下)

韓雪野

그런데 이 全體的, 綜合的 研究에 있어서의 가장 根本的인 것은 『世界觀』이다. 世界觀은 새로 開拓될 歷史的 綜合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核心인 것이니 우리가 恒常 史學界에 待望하는 것은 實로 이 世界觀의 關心인 것이다.

그리하여 文化科學的 史家 卽 科學者, 藝術史家, 宗教史家 等 特殊研究家は 그 特殊한 收獲을 全歷史過程의 全體性에 結付시키라는 關心의 增大와 그들이 各樣의 文化科學的 抽象에 依하여 分離, 分析한 諸部門을 相互 關聯시키라는 것과 經濟的, 社會的 世界와 精神的 世界와를 關聯시키라는 것과 또는 藝術, 宗教, 科學 等과 如한 各種의 精神的 諸領域과 客觀的 現象과를 對照하라는 方法的 處理를 窮極에 있어서 忌避해서는 안될 것이다. 卽 先進史家들에 依하여 提起된 이러한 歷史哲學的 關心을 우리들의 史學界도 마땅히 가지기를 우리는 待望하는 것이다.

近日 韓植氏가 歷史文學의 再認識을 提唱하고 잇거니와, 이 小論과도 多少 關聯이 있는 問題이니 尙호로 史學과 文學에 對한 若干의 私見을 한 마디 附加하는 것을 許한다면 나는 여기서 歷史文學의 最高峰인 웍스피어[셰익스피어]의 文學을 들어 史學과 文學 關係를 若干 말하는 배 잇고저 한다.

그의 文學을 評하여 『華麗巨大한 建築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 같다.』고 한 어떤 評家の 말을 읽은 記憶이 아직도 새롭거니와, 그는 實로 市民社會의 擡頭 아래에서 무너지 가라는 巨大한 建物—封建社會를 發見한 것이다. 그러타고 그는 封建社會의 咀呪者들도 아니오 資本 誕生의 謳歌者로 自處한 것도 아니다. 다만 그가 歷史를 보는 눈이 너무도 밝엇든 것 뿐이다. 그리하여 그는 時代의 推移와 降替를 그 史學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明晰히 發見할 수 잇섯든 것이다.

卽 그의 作品은 그의 作品을 넘어서 時間的으로 前後에 펼쳐진 史的 全體의 한 개의 通過點으로 浮彫된 것이다. 이 通過點에 서면 前後가 가장 明瞭히 보이는 것이니, 그러니만치 그의 作品은 如實히 그 時代를 捕捉하였다고

할 것이요, 따라서 쉐스피어의 偉大性도 여기 잇는 것이다. 우리는 한때 톨스토이와 가티 그의 作品을 貶下한 일이 잇스나, 다시 그 作品의 史的 意義를 發見하는 때 必然的으로 再認識의 必要를 느끼게 되는 것이며, 또 그 作品이 오늘까지 그 누구의 것보다도 人口에 膾炙되는 理由를 알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스코트를 보면 그는 라스킨의 말과 가티 人間에 關한 知識에 잇서서는 到底히 쉐스피어의 比가 아니고, 運命의 轉變하는 原因이며 그 過程을 洞察하는 聰明에 잇서서는 더욱 쉐스피어에 및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는 中世의 霧圍氣를 造出하여 스스로 그 가운데서 산데 잇서서는 아마 쉐스피어도 三舍를 避하지 안힐 수 업슬 것이다. 그만치 스코트는 中世의 全體的인 相貌와 呼吸과 脈動을 分明히 眞摯히 捕捉하였든 것이니 여기에 그의 眞面目이 잇는 것이다.

그러타고 作家는 반듯이 史家의 뒤만 따라갈 것은 아니겟지만, 그러나 上述한 바와 如한 意味의 眞正한 史學研究가 잇게 된다면, 그만치 文學作品(歷史文學)을 刺戟하고 昂提시킬 것은 贅言을 要치 안는 바이다. 그리고 보니 史學界에 보내는 우리들 文學徒의 希求도 決코 적은 것이라고 볼 수 업는 것이요, 또 歷史文學의 再認識이 提唱되는 오늘에 잇서서는 더욱 時宜에 適한 問題라고 할 것이다.

勿論 어떤 史實을 文學作品으로 移植하는 데에는 藝術的 形象化의 特殊한 方法이 必要할 것이나, 이것은 筆者의 領域이 아니니 歷史文學에 뜻을 두는 이에게 밀우고 여기서 붓을 늦는다.